

# 여수시, 일상에 가치를 더할 '시민 아이디어' 찾는다

## 5월 8일까지 '2026년 시정발전 테마형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여수시는 시민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을 실현하고자 오는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2026년 여수시 시정발전 테마형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에 가치를 더하는 7가지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7개 분야로 ▲나눔문화(자원봉사, 기부 등) 활성화 ▲1회용품 사용감량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및 활동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문화접근성 확대 등이다.

여수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 7개 심사항

목에 대한 심의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된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최우수(40만 원) ▲우수(20만 원) ▲장려(10만 원) 상당의 여수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국민생각함(국민신문고 및 누리집)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공모전"이라며 "일상의 불편을 개선하고 여수의 미래를 밝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수시가 시민 참여형 정책 실현을 위해 '2026년 시정발전 테마형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 기간은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일상에 가치를 더하는 7가지 아이디어'이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개선할 방안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분야는 ▲나눔문화 활성화 ▲1회용품 사용 감량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등 7개 분야로 구성됐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제출된 아이디어는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 7개 심사항목으로 심의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최우수 40만 원, 우수 20만 원, 장려 10만 원 상당의 여수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참여자는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 후 국민생각함 또는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의미 있는 기회다.

/이유빈 기자



2026. 4. 10. ~ 5. 8.

### 2026 여수시 시정발전 테마형 아이디어 공모전

여수시민의 일상에 가치를 더하는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중요주제** 일상에 가치를 더하는 7가지 아이디어

- ① 나눔문화(자원봉사, 기부·자선 등) 활성화
- ② 1회용품 사용감량
- ③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
- 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및 활동
- ⑥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 ⑦ 문화접근성 확대

**참여대상** 여수시민 누구나

**참여방법** 국민생각함(국민신문고, 누리집) 또는 이메일 접수

» 국민생각함 : <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 이메일 : [lucycho@korea.kr](mailto:lucycho@korea.kr)

**제출서류** 제안서 및 제안내용설명서

»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문의** 여수시청 기획예산과 평가팀(☎061-659-3433)  
 »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6.4.10 ~ 5.8 여수시 시정 발전 테마형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사진 /여수시청 제공

## 순천시, 외국인 주민 대상 한국어 교실 운영

순천시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외국인 주민 대상 한국어 교실'을 3개 단체에서 지난달 26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어 교실은 사단법인 재난안전솔루션(대표 정용태), 사단법인 글로벌외국인지원센터(대표 김영옥), 주안농촌협약협동조합(대표 김영기)의 3개 단체가 주관해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 수준과 생활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 한국어 교육 ▲한국 생활 문화 이해 ▲생활 안전 교육 등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단순 언어 교육을 넘어 지역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상호 문화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 수강생의 만족도와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 광양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전담 조직(TF) 운영

광양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TF 운영은 여름철 재난 발생 이전에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보완해 부서별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4월부터 점검 완료 시까지 TF를 운영하고, 4월과 5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해 부서별 이행 상황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TF는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5개 부서와 12개 읍면동이 참여하며, 점검항목에 따라 기능별 5개 반으로 구성된다.

각 반은 부서별 점검항목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자료와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예정이다. 또한 부서별 이행 상황 점검회의를 총 3차례 열어 미흡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방침이다.

중점 관리사항은 ▲인명피해 우려 지역 발굴 및 관리 ▲통제·대피 기준 정량화 ▲주민대피지원단 구성 등 대피체계 마련 ▲도로·하천·매립장 등 시설물 정비 ▲재난상황실 운영체계 정비 등이다.

세부 일정은 4월 6일 TF 운영계획 시달을 시작으로 4월 23일까지 부서별 점검을 실시하고, 4월 24일 1차 점검회의를 연다.

광양시는 이번 TF 운영을 통해 점검항목 이행률을 높이고 평가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대비의 실효성을 높여 보다 촘촘한 재난 대응 준비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유빈 기자

## 5월, 곡성섬진강기차마을로 초대합니다.

### 어린이날 특별 이벤트

전남 곡성군이 오는 5월 황금연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은 오는 5월 3일(일)부터 5월 5일(화)까지 3일간 섬진강기차마을 일원에서 어린이날 기념 특별 이벤트 '기차마을 대탐험! Hi Fun Balloon Festival'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풍선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가족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하고자 기획되었다. 어린이날 특별 공연으로는 「어린이 명작 뮤지컬(커다란 방귀)」과 「디즈니&애니메이션 OST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고, 눈을 땔 수 없는 매직 일루전 쇼와 신나는 DJ 랩댄스 공연이 축제의 흥을 더한다. 또한 행사 기간 3일 내 마술쇼, 버블쇼, 벌룬아트, 키다리

베어로 등 관객과 호흡하는 버스킹 공연이 상시 운영된다.

터널형 에어바운스와 미니 오징어 게임, 명랑 벌룬 운동회, 애완새 교감 체험, 이동식 천문대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캐릭터 굿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어린이날인 5월 5일 하루 동안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섬진강기차마을을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어린이날을 맞아 섬진강기차마을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준비했다"라며, "풍선과 함께 펼쳐지는 축제를 통해 많은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유빈 기자

## 구례소방서, 소방기관 사칭 사기 주의 당부

### 사기 주의 당부

구례소방서(서장 한만조)는 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한 물품 구매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소방 공무원 또는 소방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위조된 공문서와 명함을 제시하며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방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점검 예정" 등을 이유로 특정 업체 제품 구매를 유도하며 긴박감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사칭 사기는 숙박업소, 음식점, 주유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구례소방서는 "소방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업체의 물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구례소방서 등 공식 기관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자나 메신저로 전달된 공문이나 명함은 위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조금이라도 의심될 경우 즉시 소방서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례소방서 관계자는 "군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례소방서는 군민들에게 소방기관을 사칭한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심되는 연락이나 문서는 즉시 확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심선성 기자



NAJU 우리농가를 살리는 착한 소비!

오색마을 [나주시 쇼핑몰]